

충청남도 지리적 중심점 활용 방안

송 두 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수석연구위원, dbsong@cni.re.kr)

최 돈 정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초빙책임연구원, jjolddagoo@cni.re.kr)

박 정 환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parkwiting@cni.re.kr)

강 수 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sh3737@cni.re.kr)

이 연구는 첫째, 충청남도의 지리적 중심점을 활용한 청양군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장소 마케팅 방안을 모색함. 둘째, 충남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청양군의 장소성을 확립함. 셋째, 지리적 중심점의 지역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CONTENTS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지리적 중심의 활용사례 및 시사점
4. 충남의 지리적 중심점 도출
5. 정책제언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리적 중심점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지리적 중심의 활용사례 및 시사점을 검토한 다음, 충청남도의 지리적 중심점을 3가지 방법으로 하여 섬지역 포함 및 미포함(안면도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충청남도 지리중심점은 섬포함시 운곡면 모곡리, 대치면 상갑리이고, 섬을 제외하면 운곡면 신대리임.
- 충남의 지리중심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남도 지리중심점에 대한 장소정체성 향상을 위해 지리중심점을 활용한 청양의 이미지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함.
 - 둘째, 충남도립대학, 연구기관 등이 충남지리중심지에 대한 가치 및 학술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초·중·고등학생들 대상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함.
 - 셋째, 지리중심점에 안내판, 표식, 상징조형물, 주변환경 정비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이벤트 개최를 통해 관광명소화 함.
 - 넷째, 지리중심점으로 도출된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부족하고, 신규개발시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청양군내 기 개발된 관광지에 (가칭)충청남도 지리중심(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을 검토함.

0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 최근 장소를 상품화해 지역의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장소마케팅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장소인 장소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됨(김창환 · 김진선, 2009).
- 지리적 중심점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소마케팅 요소로 활용된 사례가 있으며 충남의 경우도 세종시 분리 이후 지리적 형상이 변화함에 따라 지리적 중심점 산출을 통한 장소마케팅 요소로 활용이 필요함.

1.2. 연구목적

- 충청남도의 지리적 중심점을 활용한 청양군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장소 마케팅 방안을 모색함.
-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충남의 지리적 중심점 도출
- 충남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청양군의 장소성을 확립함.
- 타 지자체 및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충남의 지리적 중심점을 지역 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

02 연구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 2017년

2.2.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섬 포함 / 섬 미포함)

2.3. 내용적 범위

- 지리적 중심점 개념검토
- 지리적 중심점 활용의 타 자치단체 및 국외 사례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지리적 중심점의 산출방법 검토
- GIS 기반의 충남 지리적 중심점 산출
- 충남 지리적 중심점 활용방안(관광, 교육, 문화 등)

03

지리적 중심점의 활용사례 및 시사점

3.1. 해외사례

3.1.1 미국

- 지표면을 두께가 일정한 평면으로 가정한 후 지표면의 무게 중심점을 산출함.
- 인접한 48개 주를 기준으로(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함) 한 본토의 중심을 캔사스(Kansas) 주, 스미스 카운티(Smith County), 레바논(Lebanon) 부근으로 정함.
- 레바논시의 경우 1941년 표지석이 설치된 이후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되었다가 최근 표지석 주변에 공원을 설치하였음.
- 하지만 시민들에게 단순 휴식공간으로만 제공할 뿐, 특별히 중앙지점과 관련한 조형물이나 축제 등은 없는 상태임.
- 알래스카가 영토로 편입된 이후의 중심과 같이 영토가 확장될 때마다 중심을 구함.
- 또한 북미 대륙 전체의 중심과 각 주(State)별로 지리중심점이 있음.

3.1.2 일본

- 1919년 이후 효고현 니시와키에 ‘일본의 배꼽’이라는 별칭으로 지리 중심을 주장함.

- 현재 니시와키시에서는 국토정중앙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정중앙을 배꼽으로 형상화하여 “일본 배꼽 기념비”를 설치하였음.
- 일본의 정중앙지점을 ‘배꼽공원’으로 정비하여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의의를 중시하고 한없는 우주를 주제로 한 ‘니시와키 경위도지구과학관’, 니시와키 출신 화가인 요코오 다다노리의 작품을 전시하는 ‘오카노야마 미술관’을 건립하였으며, 매년 12월 ‘일본 배꼽 자오선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일본 배꼽공원” 개발현황

연도	세부내용
1983년	· 기존 오카노야마 공원구역에 통합 · 확대하여 정비개시 · “일본 배꼽공원”이라 명칭사용
1984년	· 오카노야마 미술관 개관
1985년	· 일본 배꼽공원역 신설
1993년	· 니시와키 경위도 지구과학관 개장
1994년	· GPS 측량 정중앙점에 일본배꼽기념비 완공
1995년	· 대형 과학놀이 광장 “우주 어린이 랜드” 완공

김진선, 2009



미국의 국토정중앙 안내판

일본 배꼽공원

김창환, 2008

[그림 1] 미국과 일본의 국토정중앙 사례지역

3.1.3 유럽

● 리투아니아 빌뉴스

- 1989년 유럽대륙 국경선의 재설정 이후, IGN(프랑스 국립지리원)은 유럽의 지리적 중심이 북위 54° 54′ 동경 25° 19′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함. 이 지점은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 북쪽의 Pumuskes 마을근처임.

- 유럽 정중앙의 명소화 전략

(1) 유럽공원의 개발

유럽공원 조성의 원래 목적은 유럽의 지리적 중심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으나 차후 리투아니아 및 국제적인 현대 예술을 나타내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함께 수반되었음. 최근에는 유럽공원과 유럽정중앙이라는 두 개의 매력물들이 결합 및 연계됨으로써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

(2) 지리교육을 활용한 명소화

리투아니아는 빌뉴스의 유럽정중앙을 명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리교육”이라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리투아니아 9학년 지리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앞뒤 표지에 유럽정중앙 기념물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위치’를 설명하는 단원에서는 약 2쪽에 걸쳐서 리투아니아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유럽정중앙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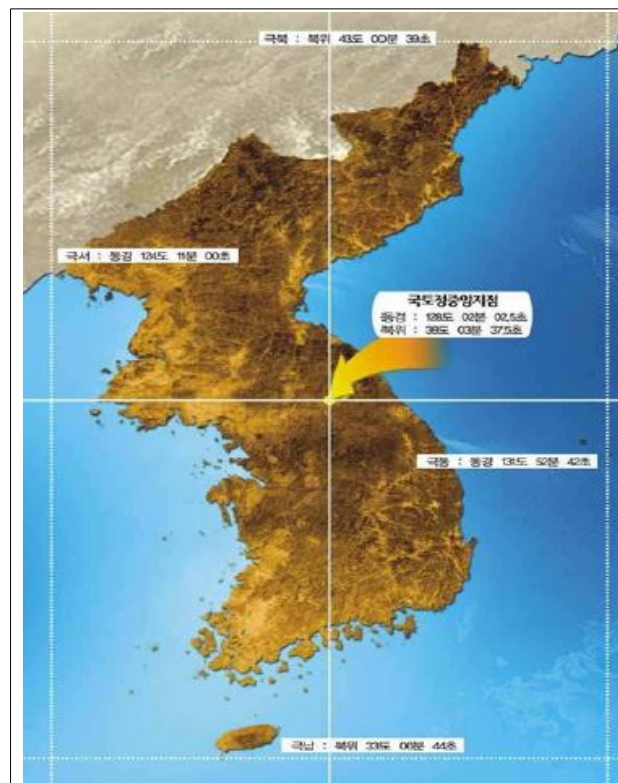
(3)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명소화

빌뉴스 내 1994년 빌뉴스 역사지구가 조성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음. 이러한 세계문화유산과 인근의 유럽공원 등을 유럽정중앙과 연계시켜 유럽정중앙을 명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광객 증가 효과를 보고 있음.

3.2. 국내사례

3.2.1 양구군

-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토의 4극 지점을 기준으로 +자, ×자의 좌표상 교차점이 위치하는 곳으로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 일대로 봉화산 7부 능선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확인됨.
- 2001년도 강원 도민일보 부설 강원사회조사연구소가 주관하여 국립지리원과 강원대학교의 공식 확인을 거쳐 도근측량, 인공위성 수신 등 GPS장비를 활용하여 측량함으로써 2002.5월 최종 확인됨.



[그림 2] 양구군 국토정중앙 위치

- 통일한국의 중심지, 정신적 중심지, 환경중심지, 첨단과학의 중심지, 문화·예술의 중심지라는 개발의 중심주제를 활용하여 강원도와 양구군만이 가지는 잠재적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자원을 국토정중앙의 개념과 최대한 연계하고 잘 보존된 자연생태환경 자원과 남과 북의 자연스런 교류분위기 등을 경쟁우위의 요소로 삼아

새로운 국가 이정표 정립과 상징적인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구상되었음.

-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04억원을 들여 지구과학관, 테마파크, 시계탑공원을 내용으로 하는 하늘빛 관찰원과 북극성광장, 대지의 전시관 등을 개발하였음.

3.2.2 울산광역시

- 울산의 중심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 38-6번지 문수산 자락으로 확인됨.
- 울산광역시는 시민의식 결집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리적 중심점을 탐색함.
-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리적 중심점을 시민과 학생의 울산사랑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지석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포함해 시민의식을 결집할 공간으로 관광자원화 함에 목적이 있음.

3.2.3 광주광역시

- 광주의 중심점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53-1 광주시수질관리사업소가 위치한 지점이며, 조형물 ‘아름다운 만남’ 을 설치함.



[그림 3] 광주광역시 지리적 중심점(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동단으로는 북구 충효동, 서단으로는 광산구 양동, 남단으로는 남구 구소동, 북단으로는 광산구 광산동을 선정해 각각 동, 서, 남, 북 끝단 경계점을 설정하고 중심점에 상징물을 설치함.
- 또한 GPS측량과 정밀검사를 실시해 현재의 중심점 위치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확정하고 그 위치에 국토해양부 추진 전국 통합기준점을 설치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계측지계 좌표전환과 수시로 변동되는 지형·지물 변화지역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게 되었음.

3.2.4 서울특별시

- 서울의 지리적 중심은 남산 정상부임.
- 기존 중심점은 종로구 인사동 5길 25(하나로 빌딩 1층)으로 1896년 설치하였으나 이는 조선시대 당시의 기준점으로 그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은 서울의 행정구역 변천 등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그림 4] 서울특별시 지리적 중심점(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도로원표는 1914년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 네거리에 한반도 18개 도시의 거리가 표시된 표석을 설치한 것으로 서울의 실제 중심점은 아님.
- 기존에 있는 측량기준점(경위도 원점, 2등 삼각점)과 서울의 중심점을 통합하여 새로이 중심점 조형물을 설치하였음

- 중심점 조형물은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세종로파출소 앞에 위치하며, 중심점 주변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 등 4개 언어로 된 중심점에 안내 설명판과 바닥/지주 이정표 설치가 되어 있음.
- 서울시는 지리적 중심점이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 적지분석,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지리적 중심점이 남산에 위치함으로써 지리적 공간인지능력 향상 및 서울을 공부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지리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3.2.5 그 외 기타

- 한반도의 내륙만 가지고 중심점을 산출한 경기도 포천시와 역사적인 전통성을 근거로 한반도의 중심이라 주장하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있음.
- 포천시는 위도 38도 1분 선과 경도 127도 26분 선이 만나는 영증면 성동리가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주장함. 포천시가 정한 4극점은 함북 경흥군 노서면(東), 평북 용천군 용천면(西), 전남 해남군 송지면(南), 함북 온성군 유포면(北)이나 4극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 포천시의 주장과 달리 약간 북쪽에 점이 찍힘. 포천시는 “상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포천은 국토의 중심에 가장 가깝고, 예전부터 우리도 국토중심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함.
- 충주시는 지형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역사책이나 지명, 유물(중앙탑)을 보면 충주가 국토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함.
- 그 외 지리적 중심점이 아닌 지리적 위치자원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음. 지리적 위치자원이란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
- 마라도는 국토 최남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리적 위치자원으로써 대한민국 최남단비가 설치되어 있어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음.
- 독도는 국토 최동단이라는 지리적 위치의 상징성과 일본과의 영토 문제로 지리적 위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으며, 동도 선착장에 국토 최동단 기

념석이 설치되어 있음.

- 땅끝마을은 섬을 제외한 한반도의 남쪽 끝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리적 위치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개발되었음.
- 정동진은 지명 자체의 상징성과 유명세로 인하여 지리적 위치자원으로써 상징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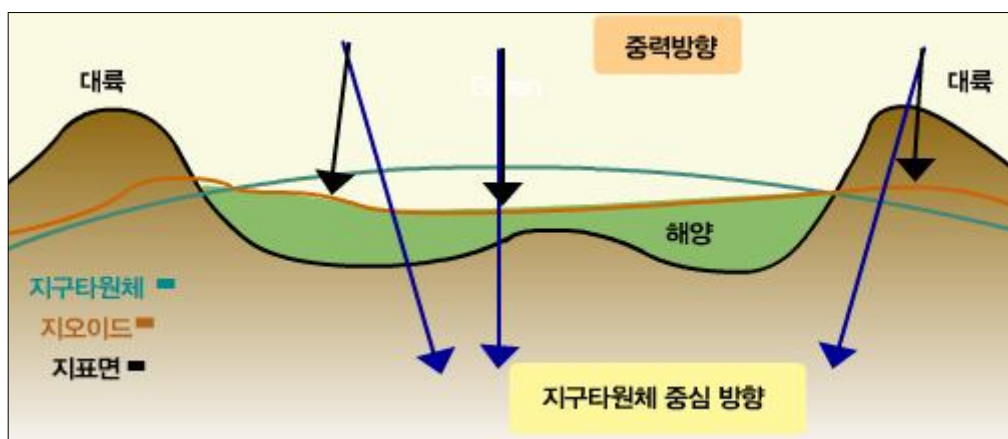
3.3. 시사점

- 정중앙, 즉 지리적 중심점은 관광 매력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손일(2006)에 의하면 위치 정보만으로는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속성정보가 개발될 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음.
- 그러나 속성정보 다시 말해 정중앙과 연계된 매력물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관광지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음.
- 소비자 기호의 변동성으로 인해 관광지의 수명주기는 예전에 비해 단축되고 있으며 민감한 유행의 변화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는 소비자의 기호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정중앙’ 자원을 통한 관광지 개발이 일시적인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

04 충남의 지리적 중심점 도출

4.1. 지리적 중심점 도출 방법

- 세계적으로 지리적 중심점을 도출한 사례를 검토해 보면 연구자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학술적인 논문 형태 보다는 간단한 이슈 페이퍼나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이 대다수이며 홍보물이나 신문기사 형태의 유럽 보다는 미국의 경우가 비교적 잘정리된 형태의 보고서가 존재함.
- 미국의 경우 지오이드¹⁾나 지표면의 굴곡이 없는 일정한 평면형태의 지구 타원체를 가정하고 무게중심점(centroid)을 도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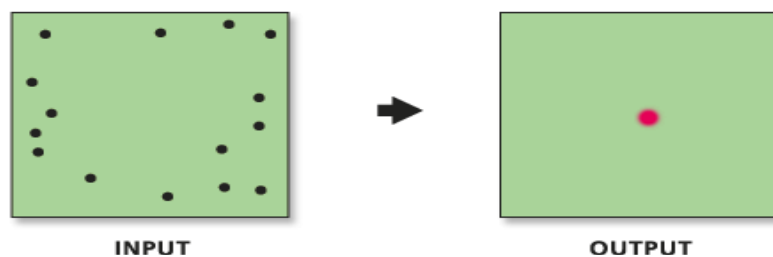


[그림 5] 지구타원체와 지오이드(자료 :<http://gis.seoul.go.kr>)

1) 중력 방향으로 수직하고 있는 평균해수면을 대지에 연장하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타원체로서 위치에너지가 0인 등 포텐셜면 이다. 이는 가장 지구의 형상과 유사하고, 지구의 표면이 약70%가 바다이므로 나머지 대지부분을 바다로 생각하고 연장함. (출처: <http://powergis.tistory.com/1>)

- 이러한 방식으로 인접한 48개 주를 기준으로 한 본토의 중심을 캔사스(Kansas) 주, 스미스 카운티(Smith County)의 레바논(Lebanon)부근으로 정했으며, 알래스카가 영토로 편입된 이후의 중심과 같이 영토가 확장될때 마다 중심을 구한 사례가 있음.
- GIS 컴퓨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중심점을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손쉽게 구현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리적 중심점 산출 방식은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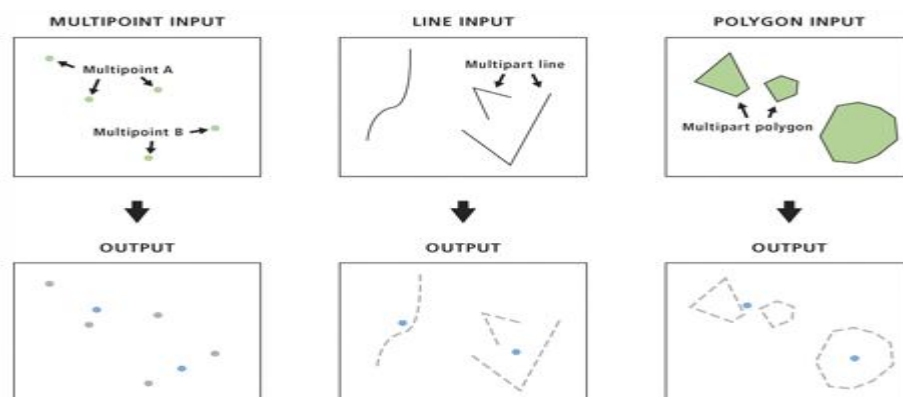
① 평균중심(mean center) 방법 : 연구대상 지역내 모든 공간객체(feature)의 x, y 좌표의 평균지점



[그림 6] mean center의 개념

(자료: ArcGIS 10.1 User Guide Book, E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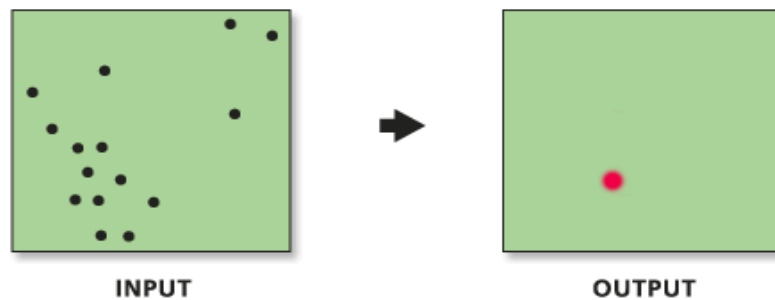
② 공간 객체의 점 사상변환(feature to point) 방법 : 입력된 점사상(point), 면사상(polygon), 선사상(polyline)의 중심점(centroid)를 산출해주는 방식으로 분리된 형태의 공간객체(multipar feature)의 경우 또한 중심점을 산출할 수 있음.



[그림 7] feature to point의 개념

(자료: ArcGIS 10.1 User Guide Book, E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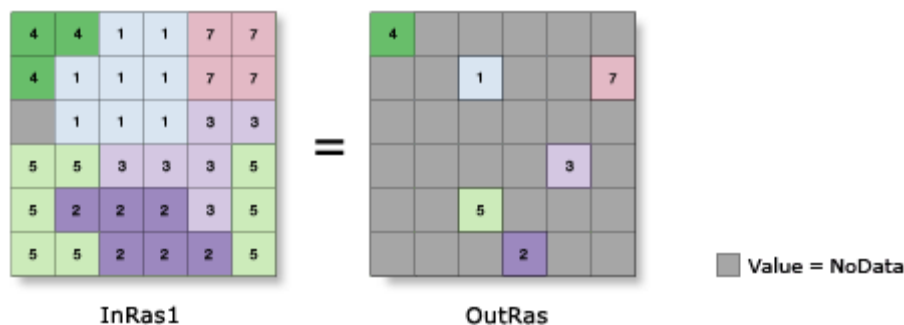
- ③ 중심 공간객체(central feature) 산출 방법 : 주어진 공간객체의 입력된 점사상(point), 면사상(polygon), 선사상(polyline)의 중심지점을 산출해 주는데 주어진 객체의 토폴로지(topology)²⁾대로 중심지점을 산출함. 또한 자료의 군집 성향을 고려한 중심점을 산출한다는 특징이 있음.



[그림 8] central feature의 개념

(자료: ArcGIS 10.1 User Guide Book, ESRI)

- ④ 조널 지오메트리(zonal geometry) 방법 : 평균 중심산출과 동일한 원리로 중심점을 산출하는 도구 이지만 결과물을 vector형태가 아닌 raster형태로 산출하는 특징이 있음. 또한 평균 중심산출 방법이 연구지역 대상내 모든 공간객체를 고려한 하나의 중심점을 산출하는 반면 이 방법은 객체 수와 동일한 수의 중심점을 산출하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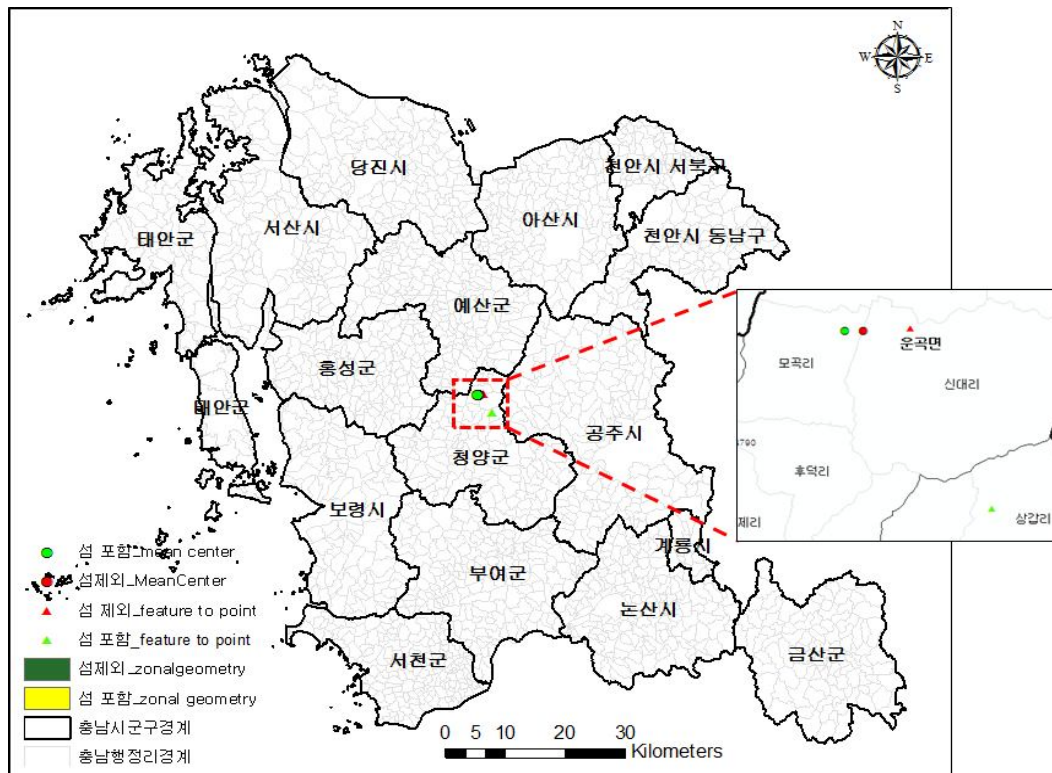
[그림 9] zonal geometry의 개념

(자료: ArcGIS 10.1 User Guide Book, ESRI)

2) GIS에서는 수학적 서브필드(Subfield)로서 특징요소(feature)들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하며 점, 선, 면의 위상관계를 의미함

4.2.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 산출

- 앞 절에 제시된 4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를 산출하였음. 단, central feature 방식의 경우 입력 자료가 면사상(polygon) 형태의 시군구 경계자료이고 임의의 점사상(point)자료로 변환할 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서 제외하였음.
- 단, 섬 지역의 포함여부에 따라 지리적 중심지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섬 지역 포함/미포함(안면도 포함)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함.
-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 유통센터의 행정구역 경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는 미국의 지리적 중심점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지표면의 굴곡이 없는 형태를 가정하고 GRS80 타원체의 UTM-K 단일평면직각좌표계로 자료를 투영정의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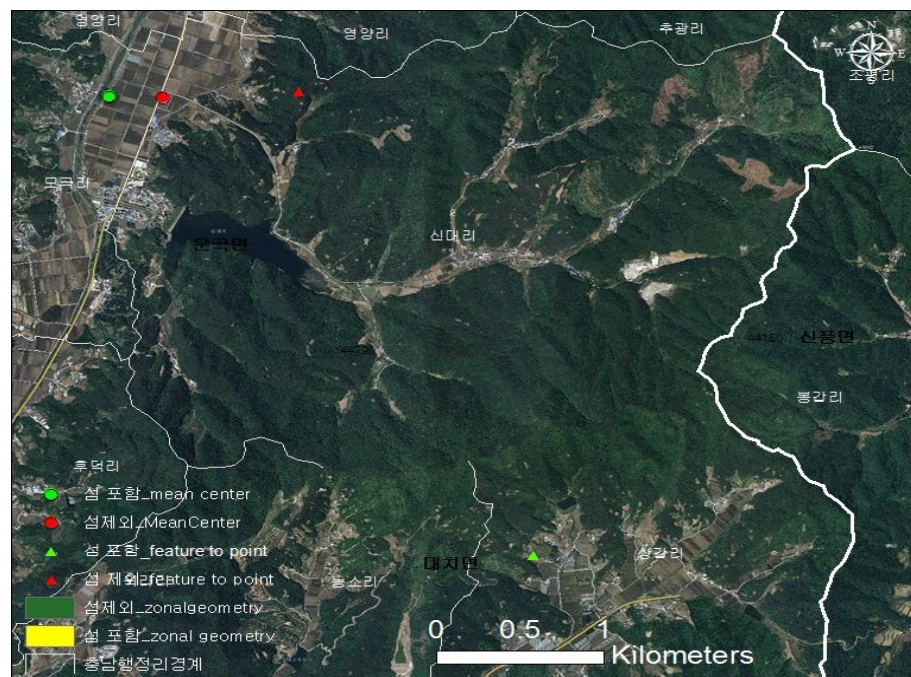
[그림 10] 섬 포함/제외 시의 충남 지리적 중심점 산출 결과

- central feature 방식을 제외한 세 가지 중심점 도출방법을 섬 지역 포함/미포함 사례에 적용한 결과 모두 청양군의 운곡면과 대치면에 산출되었음.
- 우선 mean center와 zonal geometry의 경우 중심점 산출 방법에 따라 섬 지역 포함/미포함 사례분석에서 동일한 지점으로 산출되었음.
- 그 외 각 중심점 산출 방식에 대한 경위도 좌표는 표 2와 같음

중심점	산출방식	지역	Lat.(N)	Long.(E)
섬 포함	mean center	운곡면 모곡리	36.529680	126.844103
	feature to point	대치면 상갑리	36.500936	126.872649
	zonal geometry	운곡면 모곡리	36.529680	126.844103
섬제외	mean center	운곡면 신대리	36.529640	126.847666
	feature to point	운곡면 신대리	36.530082	126.856714
	zonal geometry	운곡면 신대리	36.529640	126.847666

표 2 충남의 지리적 중심점 산출결과

- 섬지역 포함/미포함과 산출방식에 따라 경위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곳을 충남의 지리중심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양군과 충청남도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보다 구체적인 충남도의 지리중심점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1] 섬 포함/제외 시의 충남 지리적 중심점 산출 결과

05 정책제언

5.1. 충남도 지리중심점에 대한 장소정체성 형성

-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추세 속에 지자체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나 장소성을 쇄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청양군 또한 도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장소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청양군만의 장소정체성을 형성하여 청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당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미지와 관광객들의 방문율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과학적인 계측을 통해 충남도 지리중심점을 최종 확인한 다음, 지역의 장소정체성 설정, 민관파트너십 체제 구축, 학술적 기반 마련, 홍보를 통한 가치확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양구군의 경우 대한지리학회, 국토지리정보원, 강원대학교 등 다양한 민관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고 국토정중앙 확인에 대해 추진해왔음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청양군에서 충남 지리중심점을 활용하기 위한 가칭 **“충남 지리중심점 활용계획수립”** 과 같은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단계적으로 활용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지리중심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청양군에서는 지역이미지 설정에 노력해야 함. 예를 들어, **“충남의 지리중심, 충남의 심장, 청양”** 등과 같은 지리중심지를 활용한 청양이미지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2. 충남도 지리중심점 활용을 위한 교육, 학술적 접근

- 충남도립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충남지리중심의 가치제고와 활용방안(교육, 관광, 지역발전 등)을 위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
- 충남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사용하는 지역사회 교과서에 정확한 충남도 지리중심점을 수록하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초중고생들을 위한 교육이벤트를 개최함.
- 특히, 현재 충남도립대학이 청양군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도립대학 내 교양교재에 충남도 지리중심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도 필요함.
- 김진선(2009)에 따르면 양구군의 국토정중앙에 대한 내용이 강원대학교 교양교재인 “지리와 한국인의 생활”에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은 어디일까?”라는 주제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국내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중심점에 대한 정보, 사진, 동영상 등을 전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과 충남도 지리중심점에 대한 학술적 협력필요.

5.3. 지리중심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명소화

- 양구군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외지인들에게 양구가 국토정중앙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시내일원과 양구관문에 설치하여 왔음.
- 청양군 또한 충남도 지리중심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중심점에 대한 안내판, 표식, 상징조형물, 주변환경 정비 등의 설치가 요구됨.
- 청양군 관광안내도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리중심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그림 12] 청양군 관광 안내도에 충남의 지리중심점 표시

- 지리중심점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 및 각종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장소마케팅에 기반한 명소화를 지향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리중심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막연한 문화적 관광테마와 이벤트, 축제 등을 개최한다면 청양군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따라서 지리중심점의 관광자원화와 함께 청양군의 다양한 문화이벤트들을 연계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장소마케팅이 필요함
- 또한 청양군 내 각종 이벤트들과 축제 등에 5.1에서 제안한 “충남의 지리중심, 충남의 심장, 청양” 등과 같은 슬로건을 활용하여 청양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청양군 구기자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가칭 “충남의 심장, 청양군 구기자 축제 개최”, 또는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열리는 경우 “충남의 중심, 청양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등의 슬로건 및 문구 등을 통해 청양군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청양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들에게 충남의 중심이 청양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5.4. 기 개발된 관광지를 지리중심관광테마공원으로 조성

- 충남도 지리중심점으로 확인된 운곡면 신대리 등에 관광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경관이 수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도입 등 새로운 개발은 위험부담이 있고, 상당한 재원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며, 지리중심점만으로 신규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지리중심점으로 확인 된 곳에는 간단한 위치표식을 하고, 청양군내 관광지로 개발된 곳을 지리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지리중심점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리중심점이 청양군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면 무슨리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음.
- 따라서, 칠갑산 천장호, 천문대, 구기자타운 등 청양군내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기개발된 관광지를 지리중심점과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 개발된 관광지를 선정하여 충남도 중심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가칭) “충남도 지리중심(정중앙) 테마공원” 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관광지에 지리중심점 관련 관광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기존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참 고 자 료

- 김진선, 2009, 새로운 장소자산의 관광자원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국토정중앙을 사례로 -,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환, 2010, 빌뉴스 유럽정중앙을 통해 본 양구 국토정중앙의 명소화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pp.127-138.
- 김창환, 2008, 지리적 위치자원으로서의 국토정중앙의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5호, pp.453-465.
- 김창환, 김진선, 2009, 국토정중앙의 장소자산화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pp.159-166.
- 이석우, 한반도 “배꼽? 여기요 요기...” 3파전, 2006.01.17. 조선일보
- 유승각, 2011, 강원도 장보브랜딩 개발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오정준, 2010, 수리적 위치 자원의 관광개발 방향에 관한 소고 - 유럽정중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pp.115-126
- 정원석, 황재홍, 강용석, 나기창, 2006, GIS를 이용한 남한의 지리 및 지질 중심에 관한 연구, 한국지구과학연구, 제27권, 제4호, pp.416-424.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양구 국토정중앙배꼽마을(<http://jeongjungang.invil.org/index.html>)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349>)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지리적 중심점, 남산 중턱에 있다.” (2009.01.12.)